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program models for single households
in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s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혜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 원 윤소영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고선강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외래강사 강은주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Professor Song, Hyerim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Senior Researcher Yoon, So-Young

Dept. of Social Welfare, Seongshin Women's Univ.
Professor Koh, Sun-Kang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Instructor Kang, Eunjoo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1인가구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program models for single households in the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s. Data from seven female and seven male single households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demand for a program that both provides feeling safe and is self-caring came to the fore. Additionally, many respondents wanted to participate in programs with families. Second, the aspects of professional quality,

* 이 논문은 2018년 서울특별시청과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학술사업 '서울시 1인가구 현황분석에 따른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교신저자: 송혜림(sangwoosong@hanmail.net)

diversity, and systematic management were mentioned as the strengths of programs in the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s. Third, three program models were drawn up, as follows: The first model was a five-part program model like the current program settings of the Healthy Families Center. Those were sharing-caring, education, counselling, family-friendly culture, and community networking. The second model was a program for family relationships. The third was for joining programs with others. For the detailed program, a manual needs to be proposed, and the staff members who handle the programs for single households in the center will need to be retrained.

Key Words : 1인가구 (single households), 건강가정지원센터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프로그램 모형 (Program-Models)

I. 서론

가족형태의 다양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형태가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28.5%로 나타나(통계청, 2017), 1인 가구 형태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3인 또는 4인의 다인 가구의 비중은 감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보편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2018년 1월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었고, 법 조항에 1인 가구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었다. 그동안 1인 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송혜림, 2016), 우리나라 명시적 가족정책을 상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 가구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제 1인 가구가 가족정책의 대상이 되어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이 가능해졌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의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도 1인 가구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전달체계이며, 1인 가구는 다양한 가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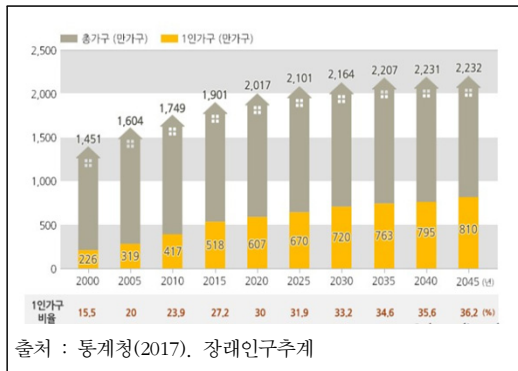
한 유형이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모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는데, 1인 가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프로그램과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1인 가구 프로그램이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지, 프로그램의 영역과 접근법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도출한 프로그램 모형은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이로써 1인 가구 보편화 시대에 1인 가구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족 단위 사업에 집중해 왔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영역을 1인 가구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나라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실천 기관이라는 맥락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 활성화는 곧 가족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II. 1인 가구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1. 1인 가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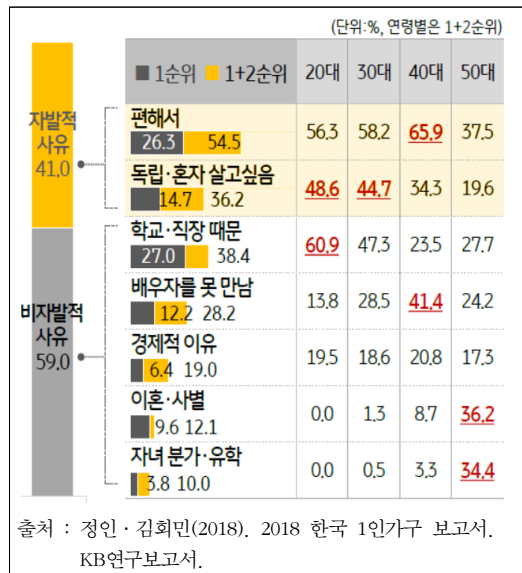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28.5%로 나타나 1인 가구 형태는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가장 주된 가구형태로 정착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통계청, 2017).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는 관련되는 생활양식과 문화, 산업,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듯이, 지역사회 전달체계의 프로그램 역시 혼자 사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요구, 생활실태 등을 반영하여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의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림 1〉 1인가구의 현황 및 성장 전망

1인가구 현황과 관련하여, 2018년 현재 1인 가구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1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는 17.2%, 20대 17.1%, 50대 16.9%, 40대 15.4%, 60대 14.3% 순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7).

한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1인 가구가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는 1인 가구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래 그림과 같이, 1인 가구가 혼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학교·직장 때문 등의 비자발적 사유가 50%로 자발적 사유(편해서, 독립·혼자 살고 싶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20대의 경우는 학교·직장 때문(60.9%)이었으며 30대는 독립·혼자 살고 싶음(44.7%), 40대는 편해서(65.9%), 50대는 이혼사별(36.2%)로 나타났다.



〈그림 2〉 1인가구생활 시작 동기

1인 가구 삶의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측면이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정서적 문제(외로움과 불안감 등), 가사활동, 치안, 주변의 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조영희, 2017 재인용).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부각되는데, 이와 관련되어 1인 가구의 소득, 지출, 주거 등과 관련된 경제적 상태에 대한 분석을 보면,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1인 가구를 주제로 한 연구들도 계속 축적되고 있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 서 연구하는 여가, 생활시간, 재무관리 등과 관련한 1인 가구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의 여가와 생활시간

최근 들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용어가 부각되면서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 정책 연구(최경은·윤주, 2013), 청년 1인 가구의 생활시간 사용 연구(송혜림·강은주·김민주, 2018), 1인가구의 관광참여행동에 관한 연구(송완구·임지은·도혜용, 2015),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여가시간 사용 결정요인 분석(서지원, 2017a), 도시지역 1인 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과 우울수준(강은나·김혜진·김영성, 2017), 노년기 1인 가구의 여가적 삶과 행복(윤소영, 2017), 1인가구의 가족자원관리와 일·생활 균형(서지원·송혜림, 2018)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1인 가구의 여가 실태 및 생활시간 사용 등을 파악하고 여가 등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를 통해 이들의 삶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송혜림 외(2018)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청년 1인 가구의 생활시간사용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 집단의 여가가 TV보기에 집중되어 있어 적극적 여가활동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서지원 외(2018)의 연구에서는 청년·중년·노년 1인 가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여가, 일·생활 균형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주중 여가활동은 세대별로 차이가 나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하는 여가의 비중이 더 높은 반면, 중년과 노년 1인 가구는 혼자보다는 친구/동료/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의 비중이 더 높게 나왔다. 주말 여가활동의 경우 세대를 불문하고 혼자보다는 친구 혹은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이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여가를 같이 할 사람이, 중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와, 세대별 인식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서지원(2017a)의 연구는 적극적인 여가를 통한 삶이 질 향상을 고려하여 홀로 주거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중년세대를 위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은나 외(2017) 역시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들은 여가활동의 경험이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규칙적인 취미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여가서비스 제공시간의 다양화와 비용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소영(2017)은 현재 노년기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가인식 변화를 위한 여가교육 방법과 노년기의 여가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 1인 가구의 구매활동

경제생활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1인 가구의 경우, 합리적인 재무관리와 소비생활이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먼저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1인 가구를 유형화한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다양한 활동지향형, 음식숙박비지출 중심형, 주거비지출 중심형, 교통비지출 중심형 등의 유형에서 청년·중년·노년 1인 가구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1인 가구 복지정책으로 주거안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성영애, 2013).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문화 소비지출 추세를 비교 분석한 연구(박근화 외, 2015) 결과, 문화 관련 1인당 소비지출에서는 영상음향과 출판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였고, 문화서비스 분야만이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이 더 많을 뿐 대부분 문화 관련 1인당 소비지출은 2인 이상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부채유형과 가계 재정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김시월·조향숙, 2014)에서는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금융기관 부

채와 비금융기관 및 사채의 경우 가계채정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총효과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방식으로 중년 1인 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김시월·조향숙, 2015)에서는, 중고령 1인 가구의 경제·건강·여가 만족도와 전체 삶의 만족도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구매와 관련 일반가구와 충동구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 연구(이철성·김장현, 2016)에서는, 일반가구의 경우 진열 및 인적 요인에 의한 충동구매가 많고 1인 가구의 경우는 관측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1인 가구의 구매활동과 관련된 패턴을 밝힘과 동시에 합리적인 재무관리,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어떤 요인이 중요한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기타

이 외에도 1인 가구 안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세부주제의 연구가 있다. 혼자 사는 삶에서는 안전한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데, 따라서 1인 가구의 안전을 주제로 한 연구로, CPTED 도입을 통한 여성 1인가구 주거환경개선 방안(김상훈·한혜련, 2014), 주택유형별 1인가구의 범죄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황성은·강부성·박지연, 2013),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 서비스 디자인 연구(왕로·홍창기, 2018), 1인 가구의 범죄피해(조현성·김상학, 2018),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박준휘 외, 2017) 등이 있다.

또한 1인 가구는 혼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과 네트워크이 중요하데,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등을 주제로 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가족자원영향학 분야에서는 이 주제를 사회적 자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미혼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이진숙·이윤석, 2014), 가구형

태와 사회적 관계의 객관적, 주관적 측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최유정·이명진·최셋별, 2016), 1인 가구의 인터넷 이용이 사회적 관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배영·박찬웅, 2015),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김혜정, 2015), 가정안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분석(서지원, 2017b) 등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제안함에 있어 심층면접 방법을 적용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중년 1인 가구 1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¹⁾. 아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미 알고 그 기관을 이용하는 1인 가구를 심층면접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그램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소개를 받아 선정하였는데, 아래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나타나듯이 20대가 비율적으로 많다. 이는 대학이 위탁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소개한 1인 가구의 경우 20대 대학생, 대학원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을 위해 설문리스트를 작성함에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연관되는 설문을 추가하였다. 개발한 설문 초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 가구 프로그램 담당자 3인, 가정복지 전문가 2인, 가족정책 전문가 2인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정 및 보완하여 완료하였다.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에 사용한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 요

1) 심층면접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중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도록, 본 연구 위탁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임. 면접대상자가 방문한 서울시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강남구·관악구·광진구·금천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 등 총 7개임

구도로서,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시간, 유형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둘째,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기관과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 질문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급하는 1인 가구 프로그램의 강점을 도출함으로써 1인 가구 프로그램 모델 제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심층면접은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이루어졌다. 총 14명의 대상자 중 단독으로 면접한 사례가 5건, 4명 그리고 5명을 함께 모아 면접을 진행한 사례로 구분된다. 면접은 2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1인 가구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²⁾ 파악하기 위해 면접 전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체크하도록 하였다. 심층면접 시 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취를 하였으며, 녹취록을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면접 대상자의 사례별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사례별 특성(N=14)

사례	연령대/성별	1인가구생활기간	학력	취업여부	1인가구형성동기
1	20대(남)	2년	대학 졸업	취업	가족관계
2	40대(여)	20년	대학원졸	취업	학업
3	30대(여)	9년	대학원재학	비취업	학업
4	30대(여)	1년 미만	대학원졸업	취업	직업
5	30대(여)	7년 반	대학원재학	비취업	학업
6	40대(여)	2년 6개월	대학원졸	취업	가족관계
7	50대(남)	11년	대학 졸업	취업	직업
8	20대(남)	2년	대학 졸업	취업	직업
9	20대(남)	1년반	대학 재학	비취업	학업
10	20대(남)	4년	대학 졸업	취업	직업
11	30대(남)	7년	대학 졸업	취업	직업
12	20대(여)	6년	대학원재학	비취업	학업
13	40대(남)	8년	대학 졸업	취업	직업
14	20대(여)	7개월	대학원재학	비취업	학업

2) 1인 가구가 된 동기, 1인 가구로 살아온 기간

IV. 연구결과

1.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요구도

먼저,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하여 1인가구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안전, 자기돌봄 및 의식주 관련 프로그램(주거관련, 식사 및 요리 관련)에 대한 선호가 높음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청소나 빨래라든지 이런 정말 1차원적인 가사들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몰라서 세탁기 돌리는 방법을 열심히 정독하기도 했듯이 가사와 관련된 것들이 초기에는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 1 20대 남성)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보다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신경 쓰이죠, 우리처럼 젊은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주거환경도 좀 열악하고 그래서 더 안전문제가 걱정되죠” (사례 3번 30대 여성)

“처음 혼자 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6년 쯤 됐죠, 부모님 제일 걱정하신 문제가 안전에 대한 거죠, 저도 그렇고 계속 신경 쓰이는 문제죠 그건” (사례 12번 20대 여성)

1인 가구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혼자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식사 및 요리, 청소와 빨래, 이사 등 주거관련 등 일상 생활 관련 또는 자기 돌봄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또한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관계형성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요구도도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하면 저도 친구도 있고 좋은데 동네에 오면 또 혼자 있고 하나까 동네사람들 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14번 20대 여성)

위 응답자는 1인 가구로 산 기간이 7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따라서 1인 가구로 새롭게 정착한 지역사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요구가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 먼저 시간에 대한 요구를 보면, 심층면접 대상자 중 많은 사례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이뤄지는 평일, 주중보다는 보다 시간사용이 자유로운 주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주중에 진행된다면 저녁 시간이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또, 한 회기 당 2~3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주중이라면 무조건 밤이어야 할 것이고

주말이라면 선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13번 40대 남성)

“당연히...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주중에는 힘들고, 밤에 시간이 난다 해도 피곤하고, 주말에도 사실은 늘 쉬는 것은 아니라서...그래도 주말 프로그램이 참석가능성은 더 높겠지요” (사례 10번 20대 남성)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참여자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선호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도 높게 나타났다.

“안전의 문제도 있고 개인의 사적인 곳에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가구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센터로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들으면 되죠” (사례 5번 30대 여성)

“다른 분들이랑 함께 뭔가를 배우고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꼭 저랑 나이가 같지 않아도, 다른 연령대, 다른 성별의 사람들을 만나 서로 이해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1번 20대 남성)

특히 떨어져 지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여행 프로그램 또는 (식사) 요리관련 프로그램, 영화관람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을 한 사례가 매우 많이 나타났다. 1인 가구의 특성 상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례 9번 20대 남성)

“뭔가 여행, 봉사 같은 프로그램을 부모님이나 형제와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3번 30대 여성)

이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난 공통점으로 부각된다. 특히 1인 가구로 산 기간에 따라서도 누군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큰 차이 없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응답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대상으로 혜택만 받는 것보다는 봉사육구를 활용한 봉사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이주여성과의 1인가구를 연계하여 서로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는 봉사단 같은 구체적인 제안도 나타났다. 1인가구의 기본 특성상 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받길 원하고 있으며, 이에 기본적으로 문화프로그램 개설은 컨텐츠와 함께 커뮤니티 형성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실제 1인 가구가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1순위의 요소는 주제의 적합성으로 나타났다.

“사실 저는 무슨 기관에 가서 프로그램 이용하고 그런 걸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제가 너무 좋으면 외출이나 연차를 써서라도 들으러 갈 것 같아요.” (사례 7번 50대 남성)

“저는 혼자 산 지 꽤 오래 돼서...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는데요. 지금은, 주제의 문구를 봤을 때 한번 더 눈길이 가는 주제라면 관심있게 보겠지만 애초에 나와 무관한 주제라면 보더라도 크게 흥미가 가지 않아 참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례 13번 40대 남성)

“아무래도 주제가 저한테 도움이 되거나 아님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그런 거여야 하겠죠. 다른 점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이 안 좋거나 저에게 안 맞으면 다시 참여할 마음도 사라질 것 같아요.” (사례 12번 20대 여성)

위 사례 중 혼자 산 기간이 긴 제보자들은 그동안 1인 가구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쌓여있고,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이 주제나 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한 청년 및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의 주제로는 일상적인 자기돌봄(의식주 생활 포함) 그리고 안전이 부각되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공동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도 높게 나타났다. 안전과 관련된 주제 외에는 여성과 남성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이 갖는 차별성과 강점

면접 대상자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프로그램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는 차별성과 강점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족에 대한 전문성, 다양성, 체계성 등을 강조하였다.

먼저 가족에 대한 전문성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미 가족 단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가족과 관련된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이 강조된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몇 번 여기를 방문하다 보니, 일단 프로그램도 엄청 많고, 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고, 홈페이지만 봐도

뭔가 매우 활성화된 그런 기관으로 보이거든요...특히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많아서...다른 데는 그냥 한 번 가서 수납정리 배우고, 또 다른 데 가서 요리 한 번 배우고 먹고, 뭐 그런 건데...그래서 센터가 좀 전문적이라는 생각이 들죠...1인 가구를 위해서도 뭔가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 같고..." (사례 14번 20대 여성)

"저는 원래 센터를 알고 있었고,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많이 봐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인 기관은 별로 없고, 뭔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그런 데 가 봐도 돈도 아깝고 그런데, 여기 센터 프로그램은 제목도 그렇게 담당자도 그렇고.. 일단은 전문성이 눈에 띈다는..." (사례 13번 40대 남성)

"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봤는데, 독서, 영화감상, 수납...뭐 주로 이런 거..근데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시간 때우기...근데 센터는 상담도 가능하고, 생활비관리 뭐 경제교육 이런 것도 있어서...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 프로그램이 전문적라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지요." (사례 11번 30대 남성)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가 가족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가족관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센터를 몇 번 방문하면서 부부상담, 부모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학교나 평생교육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러면서

센터가 가족을 위해 매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1인 가구도, 여하튼 가족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만 있으니까.." (사례 2번 40대 여성)

"...근데 센터는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찾아오고..그러니까 저도 가족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 센터에서 혼자사는 사람들, 가족과 잘 지내기, 뭐 이런 주제로 프로그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일 잘 하는 거.." (사례 7번 50대 남성)

"가족이랑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제가 혼자 오래 살다보니까, 간섭이 싫어지는데 가족은 간섭을 하니까, 그런 때 뭐랄까 서로 예의를 지킨다 그런 게 필요해서. 예를 들어 40대 1인 가구 이들에 대해 이해하기, 뭐 우리 부모님은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센터는 부모교육도 하니까..다른 데보다 더 잘 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다른 데는 못 하는 거겠지요"(사례 13번 40대 남성)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 단위 사업에 있어 전문성을 갖는다는 점은 분명 강점이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자는 가족이며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을 것 같다는 인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근데 저는 어찌다 보니 센터를 이용하게 됐는데, 친구들한테 가자고 하면, 거기를 우리가 왜 가냐고 그래요. 가족들이 찾아가는 곳이라고..아마 센터 명칭 때문인 것 같아

서...근데 명칭은 함부로 바꿀 수 없으니 까...뭔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그런 대대적 홍보가 필요..” (사례 4번 30대 여성)

“...더군다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뭐 이런 이름이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하고는 상관 없는 기관으로 보이고...그래서, 사실 와 보면 프로그램도 좋고, 참 유익한데, 막상 오기까지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례 8번 20대 남성)

1인 가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는 강점 중 하나인 다양성은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상의 다양성, 사업의 다양성 등으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대상의 다양성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대상자들이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이면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여성과 남성 등 다양하다는 인식이 강조된다.

“제가 센터 몇 번 오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걸 보고, 노인분들도 계시고, 부부나 아이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생각보다 다양해서 놀랐거든요. 그렇게 보면 혼자 사는 사람도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고 7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그런 다양한 1인 가구에 대해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사례 6번 40대 여성)

“남녀노소가 이용할 수 있는 센터니까, 혼자 사는 사람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거고...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례 7번 50대 남성)

다른 한 편으로 사업 접근법의 다양성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도 부각된다.

“센터 사업이 여러 개 잼아요, 숫자로 봐도 그렇고, 교육이나 상담은 다른 기관도 많이 하는 거지만, 여기는 봉사단도 있고, 아이 돌보미, 무슨 육아공동체에...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볼 때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우리같은 이용자들에게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라..” (사례 11번 30대 남성)

“다른 기관보다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가 장점인데, 찾아가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고, 공부하는 프로그램, 노는 프로그램, 주중-주말 프로그램, 체험이나 공동체활동...그런 것도 많고, 여하튼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된다면 것은 센터를 이용하게 만드는 좋은 유인책인 것 같아요” (사례 3번 30대 여성).

이처럼 대상과 접근법의 다양성은 1인 가구의 참여와 이용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성은 프로그램의 지속성, 적극적인 홍보, 만족도 조사 등의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제가 혼자 산 기간이 길어서 다른 데 프로그램 많이 가 봤거든요, 근데 주로 일회성, 그것도 무슨 홍보도 별로 없이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고, 끝나면 그냥 오고...그러는데. 여기 센터는 몇 번에 걸친 프로그램이 많고” (사례 2번 40대 여성)

“물론 1인가구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한 번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센터의 다른 프로그램 보면 열 번도 하고 다섯 번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좀 다른 기관과 다른 점? 긍정적이죠...뭔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

고” (사례 6번 40대 여성)

특히 만족도 조사, 요구도 조사와 같은 장치가 기관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인식을 주고 이로써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여기는 프로그램 마치면 꼭 만족도 조사를 하고, 원하는 프로그램 있는지 물어보고, 그런 게 다른 기관과 다른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느낌? 그런 부분이 좀 신뢰가 가죠” (사례 7번 50대 남성)

“프로그램 신청하면, 꼭 전화해서 참석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명단이나 명찰도 가져다 놓고, 되게 신경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기관은 신청하고 안 가도 연락도 안 오고,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안 하고... 여기는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례 5번 30대 여성)

응답자들이 언급하는 전문성, 다양성, 체계성은 곧 다른 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차별화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마다 다양한 기관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인 가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 모델 제안

이러한 면접의 결과를 종합할 때, 청년·중년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요구도 그리고 동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이 갖는 차별성과 강점을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모델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다양한 접근법을

적용하여,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5개 사업모형을 1인 가구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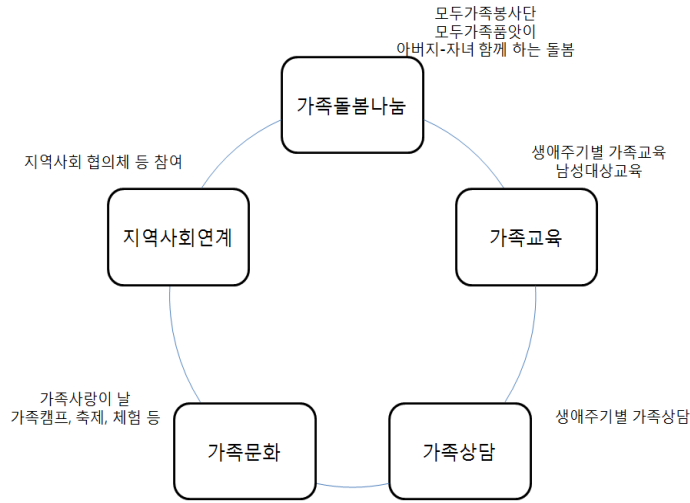
“센터를 방문하다 보면 일단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많이 있고 상담도 있고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죠” (사례 14번 20대 여성)

“지금 센터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1인 가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영역을 만들기보다는, 그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사례 5번 30대 여성)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돌봄나눔-가족교육-가족상담-가족문화-지역사회연계 등 5개 사업의 영역이 구분되고 있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1인 가구는 대상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상담 사업 영역에 1인 가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1인 가구로서의 삶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가족교육 사업영역에 1인 가구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1인 가구를 위한 재무관리교육, 가족과의 의사소통교육, 생활설계교육, 일상생활관리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나눔과 돌봄 영역에서는, 1인가구의 자기돌봄을 위한 요리, 수납 등의 프로그램, 1인 가구 봉사단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가족자원봉사단에 1인 가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인 가구의 가족과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한 대상자들 대부분이 가족과의 관계 형성에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나타냈으며, 가족 관계 증



출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그림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영역

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뭔가 가족에 대한 전문성을 가족 있는 것 같고, 센터 방문하면서 공지사항 같은 거 보면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1인 가구에게도 가족과 잘 지내는 법 뭐 이런 교육이나 상담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5번 30대 여성)

면접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주제 관련하여 특히 부각된 점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20대부터 50대까지 면접 대상자들은 그들의 결혼여부와 상관 없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동시에 일정한 정도 친밀성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이다. 또한 이는 다른 기관과 차별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강점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에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도 않고, 1년에 몇 번 안 가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영 멀어지겠다 싶은 불안도 있죠, 혼자 살면서도 가족은 중요하니까,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례 2번 40대 여성)

“저는 처음 혼자 산다는 결심을 할 때, 함께 살던 형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고, 부모님 과도 좋은 편은 아니었고...그런데 막상 혼자 살고 보니, 떨어져사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가족에 대한 마음이 더 애뜻해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뭘 어떻게 할 지는 잘 몰라서, 떨어져사는 가족과 잘 지내는 법?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례 1번 20대 남성)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이미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부모상담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그 안에 1인 가구와 관련된 주제를 포함시키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앞의 면접 내용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부모교육 안에 1인 가구 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다. 또한 기혼의 1인 가구와 같은 경우에는 부부상담, 부부 간 의사소통 교육, 부모자녀 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셋째, 면접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내용 중 하나가, 1인 가구의 경우 일상적인 삶이 자기 돌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돌봄, 타인과의 소통과 나눔이 중요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동체 활동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제가 요리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늘 저 혼자 밥 해서 먹고 그러는데, 저 혼자 먹는 밥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고, 밥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그런 때를 위해서 요리솜씨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사례 1번 20대 남성)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깐, 그냥 만나는 거 말고 뭔가 의미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봉사활동 같은 거. 혹은 요리 프로그램도, 단지 요리를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걸 함께 나누고 그렇게 운영되면 좋죠..” (사례 4번 30대 여성)

1인가구의 기본 특성상 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프로그램은 단순히 문화강좌 형식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동아리 형성과 같은 후속적인 모임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이사를 할 때와 같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때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 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1인 가구 생활품앗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익숙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 가구 조항이 포함된 계기를 포착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과 중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5개 사업영역을 적용하는 모델, 1인 가구의 가족관계 지원 모델, 공동체 형성 모델 등 3개 모델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델에 기초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면접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직업지위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도 1인 가구로 살게 된 배경, 1인 가구로 살아온 시기 등과 같은 요소도 프로그램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보편화시대에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상을 정립하려면 우선은 1인 가구 실태조사, 요구도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 개발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장에서는 매뉴얼을 통해 1인 가구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에 따라 구체적인 매뉴얼을 먼

저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매뉴얼에 따라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므로, 이는 중앙 기관이 시급히 착수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프로그램을 담당할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나름 새로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건강가정사업을 운영할 때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데, 1인 가구의 건강성 증진은 1인 가구와 가족원의 건강성 증진도 포함되지만 1인 가구 자체의 행복감, 만족도, 삶의 질도 건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현장의 실무자들이 1인 가구의 건강성 증진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해지는 가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홍보가 필요하다. 앞에서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는데, 1인 가구는 스스로 그냥 혼자 사는 개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한다는 인식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지원팀을 새로 구축하거나 다양한 홍보방법을 적용하여, 1인 가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면접 대상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전문성, 대상과 사업접근의 다양성, 사업운영의 체계성 등 강점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진단하면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은나 · 김혜진 · 김영선(2017). 도시지역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 보건사회연구, 37(2), 184-216.
- 2) 김상훈 · 한혜련(2014). CPTED 도입을 통한 여성 1인가구 주거환경개선 방안-신림동고시촌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 3) 김시월 · 조향숙(2015). 중 · 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89-118.
- 4) 김시월 · 조향숙(2014). 단독가구의 부채 유형이 가계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7(1), 157-178
- 5) 김혜정(2015).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2), 7-40.
- 6) 박근화 · 김지학 · 곽신석 · 이충희(2015).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문화소비지출 추세비교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7(5), 2495-2508.
- 7) 박준휘 · 유진 · 한민경 · 최지선 · 윤상연(2017).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8) 배영 · 박찬웅(2015). 1인 가구의 인터넷 이용이 사회적 관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다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16(3), 141-171.
- 9) 서지원(2017a). 중년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여가 시간사용 결정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3), 77-95.
- 10) 서지원(2017b). 가정안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분석:1인가구와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2), 25-50.
- 11) 서지원 · 송혜림(2018). 1인가구의 가족자원관리와 일 · 생활 균형. 2018년 대한가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12) 성영애(2013).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24(3),

- 157-181. 관광연구, 30(6), 193-216.
- 13) 송완구 · 임지은 · 도해용(2015). 1인가구의 관광참여행동에 관한 연구 : 국민여행실태조사를 바탕으로.
 - 14) 송혜림(2016). 건강가정정책의 트렌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
 - 15) 송혜림 · 강은주 · 김민주(2018).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사용 연구 - 성별 · 취업여부에 따른 식사와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2), 45-63.
 - 16) 왕로 · 홍창기(2018).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 서비스 디자인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64, 186-196.
 - 17) 윤소영(2017). 노년기 1인가구의 여가적 삶과 행복.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81-193.
 - 18) 이진숙 · 이윤석(2014). 비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 여성과 남성의 교제활동 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1-24.
 - 19) 이철성 · 김장현(2016). 식료품 쇼핑에 있어 일인가구와 1인가구의 충동구매 차이. 한국물류학회지, 26(1).
 - 20) 정인 · 김희민(2018). 2018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B연구보고서
 - 21) 조영희(2017). 1인가구 시대,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2017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 22) 조현성 · 김상학(2018). 1인 가구의 범죄피해-두려움 패러독스(victimization-fear paradox). 한국범죄학, 12(1), 19-38.
 - 23) 최경은 · 윤주(201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4) 최유정 · 이명진 · 최선훈(2016). 가구형태와 사회적 관계의 객관적, 주관적 측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2), 25-52.
 - 25)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빈곤통계연보
 - 27) 황성은 · 강부성 · 박지연(2013). 주택유형별 1인가구의 범죄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4(4), 9-17.
 - 28)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 투 고 일 : 2018년 11월 28일
- 심 사 일 : 2018년 12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02월 19일